

해빈공원의 계획 <1>

김 남 형 / 제주대 교수

공원은 도시주민에게 손쉬운 옥외 레크리에이션의 장소이며 동시에 도시의 자연을 보호하기 위한 귀중한 자원이기도 하다. 또한 지역의 경관을 창조하는 데 아주 좋은 소재로도 쓰이고 있다. 공원의 디자인은 그 입지에 따라 다르지만 공원이라고 불리우는 공간이나 오픈공간이 도시에 필요한 것임에는 변함없다. 도시 구조를 형성하는 측면에서 공원의 역할은 매우 크다.

그리고 주위가 바다로 둘러싸인 일본에서는 바다에 면한 도시가 수없이 존재한다. 이와 같은 도시에서 해빈의 공간은 매우 귀중하다. 이 때문에 해빈공원의 계획에서는 그 가치에 걸맞는 고도의 디자인이 요구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공원이라고 불리우는 곳은 공공의 공간이며 공공공간은 그것을 관리하는 행정의 차이에 따라 그 성격이 다르

다. 일본의 공원은 그 대부분이 도시계획법에 규정되어 있는 도시공원이지만 해빈공원에는 도시공원 이외의 공원도 많다.

본장에서는 도시공원의 역사를 개관하며 제도상 다른 공원에 대해서도 기술한다. 더욱이 도시공원을 염두에 두고 구체적인 디자인 순서를 나타냄으로서 해빈공원의 계획 개념을 정리하였다. 공원의 설계에는 건축, 토목, 조경, 설비라는 넓은 분야에서의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설계 기술을 상술하는 데는 많은 지면을 요구한다. 따라서 여기서는 토지 이용계획을 위주로 해빈공원 특유의 기본적인 사고방식을 나타내기로 한다.

1. 해빈공원의 개설

(1) 해빈공원이란
바다와의 접촉에는 수많은 낭

만이 있다. 수평선 저쪽에 하얗게 빛나는 아침 해에 의해 용기를 얻고 가라앉은 석양에 애뜻함을 느낀 경험은 많은 사람들에게 있을 것이다. 해빈공원은 특정 목적에 대응한 시설은 아니고 오히려 생활기반으로서 해변이 있는 도시에 필요한 것이다. 한편 공원에 대해서는 그 정의 자체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정의를 내리는 것에 그다지 구애될 필요없이 보통 사람들은 「누구라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서 공원이라고 부르는 것에 어울리는 장소」를 공원이라고 부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 때문에 해빈공원을 「바다에 면한 공원」이라고 해도 지장은 없다고 생각된다.

일본에서는 일반적으로 공원이라고 하면 도시계획에서 사용하는 도시공원을 의미하고 있다. 이것은 도시계획법 및 도시공원법에 준거한 도시 시설

로서 「국가 및 지방 공공단체가 원칙적으로 도시계획 구역에 설치하는 공원」이다. 그리고 주민 1인당 면적이나 그 배치 등에도 기준이 정해져 있고 공원 내에 설치하는 시설의 종류도 규정되어 있다. 도시 공원법은 「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도시 공원의 건전한 발달을 꾀하고 더불어서 공공 복지의 증진에 도움이 될」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해변에는 도시공원으로 분류되지 않는 공원도 수없이 많다. 가장 많은 것은 항만 시설로서 정비된 것이지만 이 밖에도 해안의 환경을 정비한 것, 어촌의 진흥을 목적으로 한 것, 자연공원의 이용을 위한 것 등이 있다. 이것들은 관리하는 부처가 다를 뿐 이용자층에서 보면 모두 해변공원이다.

해빈공원은 도시의 골격, 레크리에이션의 장소, 환경의 유지, 보전, 경관의 형성을 이루는 역할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도시의 환경 문제가 심각해지고 한편으로는 지진이나 폭우 등의 자연 재해가 증가함에 따라 도시구조에 대한 연구도 왕성해질 필요가 있다. 대지에 뿌리를 내린 넓은 녹지망과 레크리에이션 및 방재 기능을 겸비한 공원에 대한 기대는 높다.

해양을 가진 많은 도시에서는 해안선이나 해변지, 항만 등의 입해부와 바다로 향해 흐르는 하천이 도시의 골격을 형성하는 예가 많다. 해변의 양호한 자연은 도시 구조의 중요한 요소이다.

또한 해양이 가지는 이미지는 레크리에이션의 장소로 기대되는 자연자원이며 해변공원은 본질적인 레크리에이션 기능을 보조하는 작용을 한다. 더욱이 자연상태가 높은 장소를 보전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도시의 자연을 창출해내는 것도 모두 해변공원의 중요한 기능이다. 또 바다의 경관과 조화를 이루어 그 자체에 인상적인 아름다움을 갖추면 해변공원은 도시의 질자체를 높이는 것도 된다.

(2) 해변공원의 역사

공원의 역사는 도시의 역사이며 일본의 도시 공원은 meiji시대에 만들어진 것이다. 마찬가지로 해변공원의 역사도 그다지 오래된 것은 아니다. 구미의 선진국에서는 리조트지에서 해변의 개발과 도시 재개발에 의한 워터프론트의 정비가 해변공원의 건설을 촉진하는 큰 요인이 되었다. 일본에서 공원이 적극적으로 정비된 것은 경제성장이 가속화된 1970년대부터이다. 그리고 도시화의 진전,

여가의 붐, 매립지의 개발이라는 흐름을 타고 해변에도 많은 공원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a. 도시공원제도

일본에 공원이 제도화된 것은 1873년의 행정부 행정명령으로부터이며 이것에 의해 전국적으로 21군데의 공원이 지정되었다. 이러한 공원 중에서 해변공원으로 분류되는 것은 Oaka의 Hamadera공원과 Hiroshima의 Miyajima공원의 두 군데이다. 모두 해변의 경승지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친숙한 곳이다.

그 후 1919년에는 도시계획법이 공포되었다. 이것에 따라 공원은 도시계획의 시설로서 다뤄지게 되었다. 또한 1923년에는 관동 대지진 재해가 일어나서 공원의 중요성이 인식되었다.

세계 대전을 거친 전후의 일본은 산업 진흥을 목표로 경제부흥에 전력을 투입했다. 효율적으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여러 가지의 규칙이 정해지고 관이 주도하여 여러 가지 시책이 전개되었다. 그중에 도시공원법이 제정된 것은 1957년이다. 그러나 국민들은 레크리에이션을 생각할 여유가 없었으며 공공단체들도 공원을 정비할 만큼의 경제적 여유가 없었다.

b. 여가시대와 해변공원

① 도시공원 등 정비 5개년

계획

1960년대 후반부터 일본은 경제발전시기에 접어든다. 그것과 함께 사회에는 여가를 즐기려는 사고방식이 조금씩 싹트게 되었다. 여기에 호응하여 도시공원의 시책도 발전기를 맞이하여 제1차 도시공원 등 정비 5개년 계획이 1972년에 시작되었다. 그 후 도시 공원의 수는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국민 1인당 공원 면적은 첫해에 2.8m²에서 1995년에는 7.0m²까지 도달하였다. 이 도시공원 증가시책에 따라 해변에도 많은 공원이 정비되었다.

② 레크리에이션 도시

레크리에이션 도시정비요강이 책정된 것은 1970년이다. 배경에는 열도(列島) 개조와 리조트 붐이 있었으며 전국에서 일제히 레크리에이션 도시정비구상이 활발해 졌다. 이 시책은 개발을 조절하여 자연을 손상하지 않는 이상적인 레크리에이션 지역을 형성하고자 한 것으로서 공원을 핵으로 하여 자연을 보전하는 구역이 명확하게 지정되었다. 전국에서 구상의 입안이 잇따랐지만 석유 쇼크에 의해 대부분이 실현되지는 않았고 사업에 착수된 것은 전국에서 다섯군데에 지나지 않았다. 그중 Nanyo와 Kumonomada 및 Kujukuri의 세

군데가 해변 입지에 계획된 해변공원을 포함하고 있다.

③ 국영의 해변공원

도시공원은 시, 도, 군 또는 읍, 면이 설치하는 것으로 간주되었지만 1976년에 도시 공원법이 개정되어 국가도 공원을 설치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법개정에 의해 Okinawa 해양박람회 기념공원과 사진-3.3에 나타난 Uminonakamichi 해진공원의 정비가 결정되었다. 그 후 국영 해변공원으로는 Hitachi 해변공원이 추가되었다.

④ 항만의 환경정비

여가 시대를 맞이하여 각종의 공공사업은 기능적인 단일 관점에서부터 여유가 느껴지는 것으로 지향하게 되었다. 항만에서도 이 경향이 현저하여 전망타워나 수족관 등과 함께 광장이나 공원이 차례차례 정비되었다.

항만의 녹지는 건설 이전에는 항만 이용자를 위한 시설이었지만 실상은 널리 도시 주민들에게 이용되고 있다. 또한 녹지가 자체가 도시 환경에 주는 효과도 도시공원과 같다. 수직인 면에서도 해변의 도시 공원에 비견될 정도로 되고 있다.

⑤ CCZ

CCZ란 해안사업의 하나로 코스탈·커뮤니티·존(Coastal Community Zone)의 약칭이다. 친수성이 있는 계단 호안이

나 여가 시설까지를 정비 대상으로 하여 도시공원사업과 조합되는 경우도 있다. 해안의 자연 자원을 보전 활용하려는 것이며 버블 붕괴 후에도 구상은 지속되어 해변 공원을 많이 만들어 내고 있다.

⑥ 해역매립과 해상공원구상 도시화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폐기물의 처리나 토지부족 문제가 심각하게 되어 해안의 매립을 행하여 적극적으로 토지를 만들려는 발상도 제안되었다. 거기에 호응하여 Tokyo에서는 해상공원구상이 진행되었으며, Osaka, Kobe에서 Notori공원이나 해상공원(Port Island)이 만들어지고 건설성에서도 MMZ(Marine Multi Zone)구상에 따라 해변공원이 구상되었다.

2. 해변공원의 현황과 과제

(1) 해변공원정비의 현상

일본에서는 도시의 대부분이 임해부에 입지하고 있는데 1961년경부터 거점개발방식의 도입이나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해 해안선이 매립과 동시에 조성되고 공장이나 콤팩트가 형성되었다. 또한 공해 방지 등의 의미에서 완충 녹지의 정비와 함께 공원의 정비도 진행되었다. 현재도 해변공원의 정비

는 각지에서 진행되고 있다.

(2) 해빈공원의 유형

지금까지 정비된 해빈공원의 특징을 광장형, 해변형, 종합공원형, 유원지형, 경승지형으로 나눠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a. 광장형

광장형의 공원은 도시의 이미지를 강조하는 것이다. 해양을 느끼게 하는 요소를 끌어들이고 경관구성을 피함으로서 주변을 포함한 지역의 환경성을 높이는 것이 요점이다. 항만 녹지나 근린 공원에서는 이러한 디자인이 많다(Takeshiba부두공원 등).

b. 해변형

사빈은 최고의 레크리에이션 자원이다. 해수욕, 개펄 조개잡이나 서핑 등의 활동을 위주한 공원이 여기에 해당한다(Inage해빈공원 등).

c. 종합 공원형

10ha 이상의 정리된 부지를 가진 공원에서는 여러 가지 시설을 풍부하게 마련한 곳이 많고 시설이 많아서 해변다움을 살릴 수 없는 것도 많다. 시설뿐만 아니라 녹지와외의 균형을 피하여 해양의 해방감을 손상하지 않도록 광장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이런 종류의 공원에서는 중요하다(Tsujidou 해빈공원 등).

d. 유원지형

리조트 개발 등에 따른 해빈 공원에서는 유료 유원지를 중심으로 하는 것도 많다(Kure 포트피어랜드 등).

e. 경승지형

백사청송의 해안 경승지를 보전하여 그 경관을 즐기는 것이다. 소나무숲속에 공원로를 정비하고 화장실이나 휴게소를 정비하는 예가 많다. 해변의 레크리에이션 이용에 대한 수요가 높아져서 아름다운 연못이나 유희시설, 캠프장이나 풀장 등을 계획하는 예도 있지만 송림을 약간이라도 자르게 되면 수림의 생명력을 약하게 하여 송충이 등의 해를 입기도 한다(Mihonomatsubara 등).

(3) 해빈공원의 정비 과제

a. 입지측면에서의 과제

공원이란 본래 주변에 가까이 있어야 하는데 시가지 근처에 바다가 있어도 해빈공원이 정비되어 있는 예는 적고 대부분의 경우 먼 곳까지 나가는 것을 강요하는 듯한 장소에 정비되어 있다. 그 때문에 교외에서 공원용지를 찾는 경우에도 용이하게 방문할 수 있는 교통의 편리함이나 접근이 용이한 곳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해빈공원의 자연 조건은 반드시 쾌적한 것은 아니고 바

다에 면하고 있기 때문에 갯바람에 의한 습기나 여름철 더위, 겨울철 추위라는 온도차가 심해서 도시의 공원에 비해 큰 결점을 갖고 있다. 더우기 이용자는 여름철에 집중되는 등 입장객의 계절 변동이 크다.

b. 관리측면에서의 과제

해빈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은 시간이 매우 많이 걸린다. 특히 사빈의 경우는 바다에서의 쓰레기 뿐만 아니라 이용자가 버리는 쓰레기가 대단히 많아 이로 인해 모래의 막힘이 생겨 사빈이 더럽혀지고 있다. 또 여름시즌에는 불꽃놀이의 자취도 남아있는 경우가 많고 최근에는 스프레이에 의한 낙서가 두드러지고 있다. 한편 갯바람에 의한 영향으로 철물시설은 녹슬기 쉽기 때문에 그 처리를 충분히 할 필요가 있다.

식물의 관리도 과제이다. 해안은 식물이 자라기 어려운 환경이다. 그 때문에 자연 수림이라면 그다지 관리의 필요성은 없지만 잔디밭이나 화단 등에는 아주 섬세한 유지 관리를 필요로 한다.

또 해안에서는 볼륨을 한껏 높인 음악을 관리자가 흘려보내거나 수상파오토바이의 소리가 끊임없이 들리는 등 소음문제도 있다. 또한 사람이 많이 모이면 바다의 오염도 우려된다. 그 밖

에 시즌중 「바다의 집」 등의 영업관리, 화장실 대책, 안전 관리 등 관리면에서 과제가 많다.

c. 디자인측면에서의 과제

사빈과 송림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거나 해변의 산책로나 소나무 숲속의 공원로가 단조로워 변화가 부족한 것과 같이 디자인측면에서의 과제도 있다. 그들이 지는 장소나 휴식 시설, 주차장, 화장실, 각종의 레크리에이션 시설 등 이용자의 입장에 따른 시설 디자인이 요구된다. 한편 해양 그 자체를 살린 환경 디자인을 창조하는 시대가 되고 있다. 그래서 자연과 사람이 공생하고 새로운 자연관을 실감할 수 있는 참신한 디자인을 연구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이다.

3. 계획의 사고방식

(1) 공원계획의 유의점

제1의 유의점은 입지이다. 일반적으로 공원계획의 여부는 이용자의 수로 판단된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위해서는 편리한 장소에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득이 불편한 장소에 해변공원을 계획할 경우에는 버스 노선을 신설하는 등 교통 접근의 검토가 필요하다.

제2의 유의점은 바다와의 관계방식이다. 해변공원에서는 바다의 매력을 충분히 즐길 수

있도록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바다에 접촉하고 바다를 바라보고 바다의 존재를 의식할 수 있도록 시설 내용이나 배치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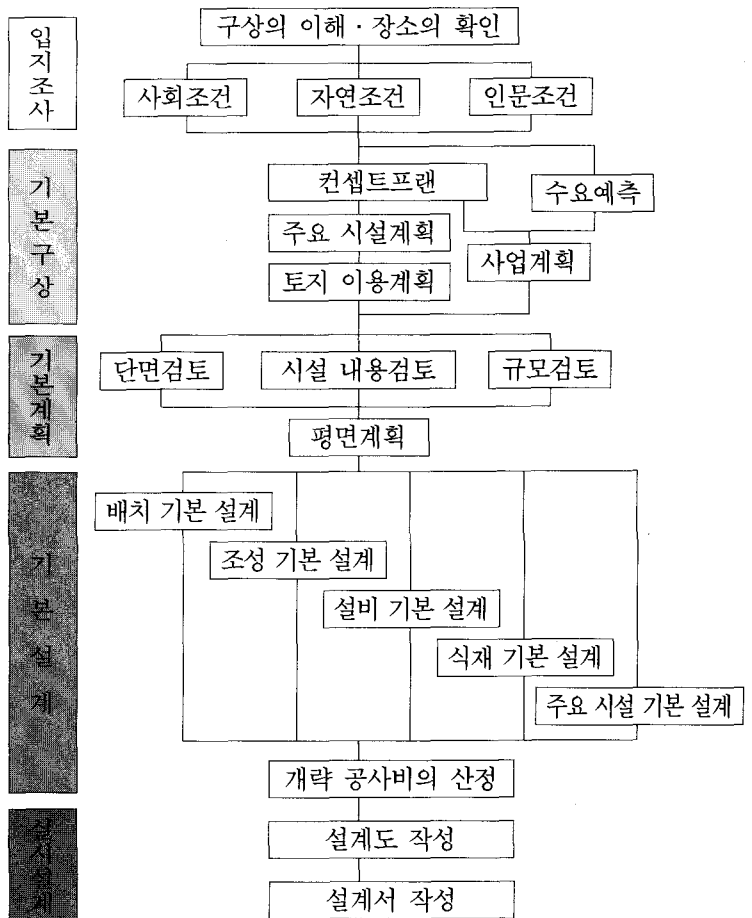
제3의 유의점은 환경조건에 대한 배려이다. 해변은 결코 내기에 좋은 장소는 아니다. 식물의 생육에도 적합하지 않다. 환경 조건을 극복하기 위해 갯바람의 영향이 적은 장소를 선정해

시설 계획을 하거나 바람막이가 되는 구조물이나 식재, 방풍망 등 세밀한 계획이 필요하다.

(2) 공원계획순서

공원의 설계에는 <그림-1>에 나타낸 것처럼 입지조사, 기본구상,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등 대개 다섯가지 단계가 있다.

입지조사는 계획이나 설계에



<그림-1> 설계의 순서

앞서 해당 지역의 사회 조건, 자연 조건, 인문 조건 등을 조사하여 구상의 이해·장소의 확인을 실시하는 것이다.

기본구상은 공원의 기본적인 사고방식이나 기본방침을 정하는 것으로 컨셉트 플랜이라고 불린다. 이것은 말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간단한 스케치나 유사사례 등을 사용해 이미지를 전달하는 쪽이 좋다. 컨셉트를 정하기 위해서는 그 도시의 특색, 공원을 계획하고 있는 지역의 위치 부여 등을 신중하게 점검해 나간다. 그 작업을 통해서 공원의 환경 조건이나 완수해야 할 역할 등이 조금씩 명백해지고 알기 쉬운 특징을 찾아낼 수 있다.

기본계획은 계획 내용을 구체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만든다. 토지이용을 평면도에 표현함과 동시에 필요에 따라 단면도를 그리거나 시설이나 구조물의 개략을 스케치로 표현한다. 관련 계획과의 일치를 피하고 현황 조사나 주민의 의향도 반영해야만 한다.

기본설계는 기본계획을 기초로 토지분할을 정하고 토지의 조성이나 상하수도, 전기 등 기반이 되는 것의 계통이나 용량 등을 정하는 것이다. 기본설계 내용은 시설배치 기본설계도, 조성기본설계도, 배수기본설계도, 급수기본설계도, 전기기본

설계도, 식재기본설계도 등의 도면으로 표시한다. 또한 용량의 검토 결과 등을 설명서로 나타내는 작업도 포함된다. 또한 실제 공사를 발주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서 실시설계가 있다. 실시설계는 공사 전체에 걸친 설계도나 사양서 등의 설계도서를 갖추는 작업이다.

4. 입지조건

(1) 사회조건

a. 접근

공원의 사회 조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공원에 어떻게 도달하는가 하는 접근(access)의 문제이다. 공원 이용자가 주로 어떤 방향에서 오는지, 도보로 도달이 가능한지, 공공 교통기관은 이용하기 쉬운지 등을 검토한다.

b. 주변의 토지이용

상업지, 주택지 혹은 공장 지대 등 주변 용도를 확인한다. 현황 뿐만 아니라 동향을 탐색하여 주변 지역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c. 산업구조

특히 도시 전체에 눈을 돌려서 산업과 경제의 실태를 파악한다. 특색있는 그 지방 특유의 산업 등도 조사한다.

d. 인구동태

주민수가 늘고 있는지 줄고

있는지, 남녀의 수는 어떤지,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지, 젊은이나 아이는 어느 정도 살고 있는 것인지 등 인구 구성을 조사하여 도시의 특징을 이해한다.

(2) 인문조건

a. 역사

토지의 역사는 계획에 반영시키는 쪽이 좋다. 역사에 남은 사건뿐만 아니라 도시의 성립이나 변화를 찾는다. 특히 그 고장 출신의 위인이나 지역에서 살았던 문화인사 등을 알면 계획에 도움이 된다.

b. 종교, 문화, 전통예술

어떤 토지에도 그 지역 특유의 문화가 있다. 감추어진 문화를 발굴하는 것은 공원 계획의 즐거움의 하나이기도 하다. 문화는 그 토지의 자연에 기인하는 것이 많다. 문화적인 특징은 공원 계획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c. 풍속 습관

오래전의 풍속이나 습관을 조사하는 것도 필요하다. 의식주나 아이들의 놀이 등 주변에 지역의 특징이 감추어져 있는 경우가 많다. 노인들에게서 찾거나 민간 연구자에게 이야기를 듣거나 한다면 의외로 간단하게 풍속이나 습관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